

<도깨비 감투> 설화유형의 한일 비교*

박연숙**

本稿では、<ドケビ カントウ>型説話の韓日比較を通じて共通点と相違点を論じた。韓国型は、貧乏な人が隠れカントウをドケビから得て人の物を盗み一時的に物質的欲望を充たすが、カントウに空いた穴をうめた赤布によって発覚するという展開を見せる。これに比して、日本型は、博打打ちが神あるいは天狗から隠れ蓑を獲得して欲しいものを勝手に取って物質的欲望を充たすが、妻が焼いた蓑の灰を体に塗って再び酒屋に行き盗み飲んでいて、寝小便をしてそこの灰が取れて発覚するという展開を見せる。このように呪宝の獲得による成功とその毀損による失敗という構成の共通点がある。一方、ドケビと神・天狗、カントウと蓑等の構成要素の相違点が検討される。説話の主題の考察においては、物質的豊かさを充たすためには正当な方法で達成すべきだという教育的社会性が考察される。同時に、隠身という幻想的話を通じてしばらく現実を忘れのんびりし、またこれからの生活を活気づけようとした民衆たちの意識と願望をも伺われる。このような娯楽的性格は、日本の話では生殖器の露出という一層誇張された表現で笑話になったという特徴をみせる。

キーワード：ドケビ カントウ、隠れ蓑、物質的豊かさ、幻想性、教育的社会性
(도깨비 감투, 입으면 보이지 않는 도롱이, 물질적 충족, 환상성, 교육적 사회성)

1. 머리말

<도깨비 감투> 설화란 어떤 남자가 머리에 쓰면 모습을 감추어주는 신통한 감투를 얻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훼손된 감투로 인해 발각된다는 내용을 가진 일련의 설화를 말한다.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특히 초등학교 교재나 동화로도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694)

** 계명대학교 일본어문학과 강사, phasu@kmu.ac.kr

입히는 구전설화 중의 하나이다.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감투의 환상적 소재가 독특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도둑질로 횡재하려는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적인 의의도 있다. 아울러 설화 속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고단했던 시절의 민중들의 비애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신기한 감투로 빛어지는 해학도 담겨 자료적 가치가 크다.

이처럼 구전의 향유에 있어서도 학문의 대상으로서도 의의 있는 이 설화는 실은 한국에서만 전승되는 고유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¹⁾의 주변국을 비롯해 서구²⁾에서도 구전되는 광포설화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자료를 입수하기 쉬운 일본의 설화를 중심으로 비교해볼 것인데, 고찰에 있어서는 함께 다루어야 할 유형이 있다.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는 제목 그대로 이마에 붙이면 모습을 감추어주는 나뭇잎에 관한 이야기로 은신(隱身)기능이 도깨비 감투와 동일하다. 이 은신기능만이 아니라 구성의 일부도 공유하여 자칫 <도깨비 감투> 설화유형으로 잘못 인식되기가 쉽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로 다루어지기도 하여 그 성격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그간의 연구현황을 짚어보고, 일본에서의 연구 사정도 알아보도록 한다.

본 설화에 대한 관심은 설화유형분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찍이 최인학³⁾은 한국의 설화를 분류함에 있어서 ‘주보’ 유형군(類型群)에 262(<호랑이 감투-마법의 두건>) 유형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 설화를 처음 유형으로 인정하고 외국의 유사유형도 제시하여 국제적인 설화임을 알린 성과를 냈다. 분류에 사용된 자료는 4편이었다.

조동일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간행된 『한국설화유형분류집』⁴⁾

1) Eberhard Wolfram(1937) “*Typen Chinesischer Volksmärchen*”, FFC 120, Helsinki, pp.109-110. [德]艾伯華 著 王燕生·周祖生 訳(1999) 『中国民間故事類型』北京商務印書館, pp.120-121. 이 책에서는 64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2) Aarne-Thompson(1964) “*The Types of the Folktale*”, Helsinki, p.214. 567D과 576E가 이 유형이다.

3) 崔仁鶴(1976) 『韓國昔話の研究 その理論とタイプインデックス』弘文堂, pp.251-252. 최인학(1994)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인하대학교 출판부, p.306.

4) 조동일 외 4인(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한국정신문화연구소, pp. 547-548.

에서는 634-5로 등재되고 참조 자료는 3편이 실려 있다.

한편,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는 최인학의 연구에서는 480으로 등재되고, 자료는 1편이다.⁵⁾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서는 722로 분류되고,⁶⁾ 4편 자료 중에 3편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든 분류연구는 설화의 전승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작업이었다면 노용환(2000)⁷⁾의 연구는 본격적인 고찰이 된다. 이 연구 이전에는 본 설화가 도깨비나 도깨비설화, 동화 등을 고찰하는 자리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는데,⁸⁾ 그는 이 한계를 뛰어넘고 개별 연구로서 학문적 대상으로 삼은 유일한 성과였다. 12편 자료의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신기한 감투의 상징 및 그에 투영된 어린이들의 환상적 의식을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그를 통해 교육적인 의의를 짚고 그 활용방안까지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도깨비 감투>의 특징은 일정하게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만 다루어진 자료가 국내의 것에 국한되어 한 면모만을 드러내었기에 그 보편성이나 한국문화 속에서 변용된 특성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노용환이 취급한 12편중에 자료12⁹⁾는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유형이었다.

한편, 우리가 검토할 일본의 유형은 <입으면 보이지 않는 도롱이(隠れ蓑)> 설화이다. 세키 게고의 『옛이야기(昔話)의 형(型)』, 이나다 고지의 『옛이야기 타이프 인덱스』의 분류안에서는 ‘소화’ 장르에 각각 468, 1150으로 등재되어 있다.¹⁰⁾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는 구전되지 않는 듯하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설화를 분류하는 연구에서는 몇 차례 유형으로 확

5) 崔仁鶴(1976) 前掲書、p.339. 최인학(1994), 앞의 책에서는 p.343.

6) 조동일 외 4인(1989) 앞의 책, p.616.

7) 노용환(2000) 『<도깨비 감투>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8.

8) 정채영(1990) 『도깨비 민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9.
김정섭(2004) 『동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서현사, pp.236-240 등.

9) 후술하는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에 든 자료1이 이에 해당한다.

10) 関敬吾(1983) 『昔話の型』 『日本昔話大成11』 角川書店、p.96.
稲田浩二(1988) 『昔話タイプ・インデックス』 『日本昔話通観』 第28巻、同朋舎、p.643.
이 稲田의 분류안은 이하 IT라고 약칭한다.

정되는 성과를 보였는데, 그에 비해 개별 분석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은신(隱身) 도롱이의 모티프를 이용한 문학작품(『가쿠레미노(隠れ蓑)』)이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에 출현하였지만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복원하려는 논의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정작 구전설화에 대한 연구는 이노쿠치 쇼지(井之口章次)의 논의¹¹⁾가 유일한 듯하다.

이노쿠치는 이야기의 형성과 그 예술성을 밝힘에 있어 이야기의 세부 구상과 그 종교적 사회적 배경의 관계를 추궁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그 한 사례로서 본 설화의 모두에 나타나는 구상, 즉 한 남자가 산에서 체나 조리, 대나무통을 사용하여 망원경 흉내를 내며 덴구(天狗)를 속여 그 보물을 획득한다는 구상이 어떤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 외에는 구전설화의 측면이라기보다 은신도구로서 도롱이와 삿갓의 문학과 역사를 검토하거나, 혹은 은신도구를 소유한 오니(鬼)나 덴구의 이물(異物)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분포력이 넓고 널리 알려진 설화임에도 학문적인 고찰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일의 전승을 꼼꼼히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이런 비교고찰을 토대로 본 설화가 보고 듣는 향유에 그치지 않고 따지는 민담의 연구로 활성화되고, 분석된 연구는 더욱이 구승이나 창작으로 계승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내용이 해와 창의적인 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2. 한국 자료 검토

본 설화가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전승되어 왔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¹²⁾ 『임석재전집 한국구전

11) 井之口章次(1952) 「隠れ蓑笠 - 昔話の趣向とその背景 -」 『民間伝承』16卷4号、日本民俗学会、pp.164-167.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65. 이 외의 자료 서지는 본문에 적은 대로이다.

설화』,¹³⁾ 임동권의 『한국의 민담』¹⁴⁾에 수록된 15편이다. 15편은 <도깨비 감투>와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로 대별된다.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를 A형, 후자를 B형이라 한다.

A형의 자료

자료	제목	채집지역	채집연도	제보자	채집자	권수	쪽수
1	도깨비 감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1979.5.13	김용규 (남 80)	조희웅 외	1-1	265
2	도깨비 능정보	충남 부여군 옥산면	1982.2.6	최갑순 (남 75)	박계홍 외	4-5	713
3	능청 감투	전남 신안군 자은면	1984.5.26	김기상 (남 62)	최덕원 외	6-6	445
4	능통감투	경북 월성군 현곡면	1979.2.26	이선재 (여 61)	조동일 외	7-1	393
5	도깨비감투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	평북 박천군 북면	1933.8	장병학	임석재	2	229
6	여우감투 쓰고 도적질하다가	평북 선천군 북면	1933.7	유준용	임석재	2	230
7	보이지 않는 의장	평북 선천군 태산면	1936.12	김홍선	임석재	2	230
8	능통감투 얻은 사람	전북 고창군 고창면	1940.1	서치영	임석재	8	19
9	도깨비 등거리	충남 아산군 음봉면	1955.8.12	이용수 (남 68)	임동권	·	159

A형 9편의 동이(同異)를 알기 쉽도록 드러내려면 우선 각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을 추출하고, 그 구성단락에 따라 검토해가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 듯싶다.

- (1) 가난한 사람이 머리에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감투를
도깨비에게 얻는다. (감투획득)

13) 임석재(1989)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2권, 평민사, p.229. 이 외의 자료 서지는 본문에 적은 대로이다.

14) 임동권(1972) 『한국의 민담』 서문당, pp.1-308.

- (2) 이 사람은 감투를 쓰고 시장에 가서 갖고 싶은 물건을 훔친다. (기적성공)
- (3) 하루는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에 구멍이 나서 빨강형겉으로 킁는다. (감투훼손)
- (4) 기운 감투를 쓰고 도둑질을 계속하다가 빨강형겉의 흔적으로 들통이 나 못매를 맞는다. (기적실패)

구성은 대체로 ‘감투획득’, ‘기적성공’, ‘감투훼손’, ‘기적실패’의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요 단락을 자료마다 대조해 보면 구성 요소에서 변이가 눈에 띈다.

(1) 단락에서는 감투를 입수하는 경로가 구연되는데, 가장 변화가 심한 단락이다. 입수경로는 ①도깨비에게 얻고, ②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산신령에게 기도하여 얻고(자료3), ③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퇴치하여 구하며(자료6), ④길바닥에서 부모의 유산인 은신 보물(갓·두루마리·신·지팡이)을 두고 싸움하는 형제를 중재한다며 받아서 도망하고(자료7), ⑤도중(道中)에 날이 저물어 무덤 옆에서 하룻밤 지내려다 만난 귀신에게서 얻는(자료8) 등으로 나타난다. 이중에 ①의 입수경로가 가장 많고 그 각편의 양상도 다르다. 이를테면, 게를 잡을 때 도깨비가 장난을 걸어오다가 두고 간 감투를 줍고(자료1), 게 잡이로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 불쌍히 여긴 도깨비가 주고(자료2), 먹고살 방법을 도깨비에게 물어서 얻고(자료4),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는데 도깨비가 죽은 사람이라며 상여에 실고 가기에 주문을 외웠더니 감투를 두고 도망하여서 획득하고(자료5), 나무하다가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기와집에서 도깨비들이 두고 간 것을 입수한다는(자료9) 양상이다.

입수한 주보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깨비 감투’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만능의 기능을 가진 ‘능청 감투’나 ‘능통 감투’라고도 표현된다. 자료6은 ‘여우 감투’라고 하는데 이는 여우가 도깨비의 대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투는 전승에 따라 ‘능청보’(자료2), ‘등거리’(자료9)로 변용되기도 한다. 싸서 감추거나 등에 걸치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사용되었을 법하다. 특이한 것은 자료7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갓·두루마리·신발·지팡이들인데, 모두 그 착용하는 부위를 감추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2) 단락에서는 감투의 신성한 은신기적이 발휘되고 그로 주인공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내용이 이야기된다. 기적은 9편 전부 물건을 훔치거나 음식을 훔쳐 먹어도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둑질하는 곳은 저잣거리의 상점이나 쌀가게, 부잣집, 제삿집 등이다.

(3) 단락에서는 사용하던 감투가 담뱃불에 훼손되어 메우는 행위가 구연된다. 훼손은 5편이나 담뱃불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뱃불은 주인공 자신이 피우거나 시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피우는 것이다. 훼손된 감투는 5편중에 4편이 빨강형겂, 1편(자료3)은 검은 형겂으로 때우고 있다.

이 단락에서 변이를 보이는 것은 자료4, 자료5, 자료7, 자료8이다. 자료4에서는 남편의 나쁜 행위를 눈치 챈 부인이 태운다. 이 자료는 일본의 설화와 유사하여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5의 경우는 훼손 내용은 없고 전반부(1), (2) 주인공의 입수행위를 모방하는 이웃사람 모방의 구성을 취한다. 자료7도 훼손 내용은 없고 주인공이 시장에서 물건을 훔쳐 서울로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8도 훼손은 없고 밤을 지새우기 위해 무덤 옆에 있다가 만난 귀신들과 함께 감투를 쓰고 제삿밥을 훔쳐 먹은 후 돌아오는 길에 귀신을 때려 도망치게 하고 감투를 독차지한다는 변이를 보인다.

(4) 단락에서는 구멍을 메운 감투를 쓰고 물건을 계속 훔치다가 발각되어 징벌을 받는 내용이 구연된다. (3) 단락에 훼손된 감투를 깎는 내용이 있는 5편에서는 모두 빨간(검은) 형겂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다. 변이를 보인 자료 4에서는 부인이 태운 재를 몸에 발라 제삿집에서 콩나물을 집어먹다 손가락의 재가 떨어져 탄로 난다. 이상의 발각에 따른 징벌은 죽도록 매를 맞고 혹은 매 맞아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웃사람 모방의 구성을 취하는 자료5에서는 이웃사람이 주인공을 모방하여 길가에 누워 있다가 결국 도깨비의 상여에 실려서는 산에 버려진 채 집을 찾지 못하고 죽는 구성이다. 마찬가지로 자료7은 주인공이 서울에 올라가서는 임금 방에 숨어들었다 이상한 낚새를 느낀 신하들이 휘두르는 칼에 옷이 찢겨 들통 나 죽는다는 징벌양상이다.¹⁵⁾ 자료8은 귀신에게 빼앗은 감투

15) 이 자료는 후술할 『용수보살전』의 내용과 유사하다. 주 23)을 참조.

로 잘 살았다는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나아갔다.

B형의 자료

자료	제목	채집지역	채집연도	제보자	채집자	권수	쪽수
1	아우 흉내 내려다 망신한 형	충남 공주군 반포면	1983.4.19	이점손 (남 81)	박계홍 외	4-6	47
2	초시선엽(楚市蟬 葉)	전남 신안군 임자면	1984.5.4	박유현 (남 74)	최덕원	6-6	84
3	안 보이는 일사귀	전남 화순군 도곡면	1984.7.27	서일 (남 48)	최래옥 외	6-10	318
4	입에 물면 안 보이는 나뭇잎	전남 보성군 별교읍	1988.5.5	김규열 (남 50)	최덕원	6-12	266
5	이상한 나뭇잎	전북 정읍군 소성면	1918	이씨	임석재	8	299
6	이상한 나뭇잎	전남 여광군 대마면	1927.2	이강성	임석재	9	137
7	이상한 나뭇잎	경북 안동군 임하면	1972.8.14	임승환 (남 13)	임석재	12	119

B형은 전라도에서는 5편, 충청도와 경상도에서는 각 1편이 채집되고 있다.

- (1) 소금장수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사마귀가 나뭇잎을 이마에 붙여 모습을 감추어 매미를 잡아먹고는 잎을 떨어뜨리기에, 그 잎을 주워 돌아온다. (나뭇잎획득)
- (2) 나뭇잎을 이마에 붙여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알아보지 못하여 잎을 떼니 알아봐서, 잎으로 모습을 감추고 시장에 가 물건을 훔쳐서 부자가 된다. (기적성공)
- (3) 이웃사람이 같은 나무 밑에 가 있다 사마귀가 떨어뜨리는 일사귀가 어느 것인지를 몰라 가득 가지고 온다. (이웃사람의 모방)
- (4) 이 사람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여 아내에게 ‘보이느냐?’라고 묻고, 아내가 처음에는 ‘보인다.’라고 하였다가 밝히려는 질문에 ‘안 보인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아내의 거짓말)

(5) 이 사람은 나뭇잎을 붙이고 시장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 못매를 맞는다. (기적실패)

B형은 은신 주보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이 A형과 공통한데 주보는 ‘나뭇잎’이다. 즉 주인공은 은신 나뭇잎을 획득하여 성공하고, 이웃 사람은 무턱대고 주인공을 모방하다 실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1)에서 나뭇잎의 주적 기능을 아는 것은 사마귀의 행위를 통해 아는 경우도 있고 집에 돌아온 소금장수의 식구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아는 경우도 있다. 은신 나뭇잎의 획득이 사마귀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빠트릴 수 없는 주요 구성성분이다. 자료3만은 사마귀의 대응으로 까치가 등장하여 그늘 밑에서 자는 주인공의 입에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변이를 보인다. 주인공의 신분은 소금장수가 3편이고 나머지는 가난한 부부(자료2), 게으른 사람(자료3), 가난한 사람(자료6)의 불특정한 인물들이다. 모두 가난한 처지가 구연된다. 소금장수는 쉽게 소금을 얻을 수 없었던 시대에 생겨난 상업이다. 직업상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에 나무아래에서 쉬는 일이 잦을 것이니, 나뭇잎을 손에 얻는 특정 인물로 적합하다.

(2)에서 은신 나뭇잎을 손에 넣은 주인공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훔친다는 내용은 A형과 동일하다. 그런데 B형은 이 단락에서 주인공의 행위는 마무리된다. 주인공은 부자가 된 것으로 그 역할은 끝이 난다.

(3)의 이웃사람(자료1은 형제)의 모방행위로 진행되는 구성은 A형과 구별되는 B형의 특징이다. 이웃사람은 주인공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지만 떨어진 나뭇잎 어느 것이 은신 잎인지를 몰라 주위에 있는 나뭇잎은 죄다 가져온다는 골계적인 행위를 연출한다.

(4)에서 이웃사람은 많은 나무 잎사귀에서 은신 나뭇잎을 찾아내기 위해 아내를 상대로 더욱 골계적인 행위를 연출한다. 아내도 밤새도록 되풀이되는 남편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전개된다. 거짓말의 원인은 ‘지루하고 잠이 와서’인데, ‘길쌈’하기 위해서도 있다(자료1). 이 단락은 이 설화유형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성이다.

(5)의 나뭇잎을 이마에 붙여 남의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는 양상은 A형과 동일하다.

이상으로 A형과 B형 각각의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3. 일본 자료 검토

『日本昔話通觀』(권2-권26. 이하 『通觀』이라 한다)¹⁶⁾에 실린 표준형 21편과 유화(類話) 51편, 총72편을 검토하였다. 72편 중에 18편(유화 8편)은 IT 1150으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54편(유화 43편)은 IT 662(<보물교환>)로 분류되어 있다.¹⁷⁾ 여기서 IT 1150은 <도깨비 감투>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유형이 다른 IT 662를 검토에 넣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IT 662의 일반적 구성은 아래 주에 이나다의 분류안에서 옮겨놓았는데, 이 유형에 등장하는 주보는 여러 종류이며 그 종류에 따라 내용구성(주로 이나다의 구성(3)-(4))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보는 입으면 보이지 않는 도롱이,¹⁸⁾ 몸에 걸치면 하늘을 나는 부채, 코를 늘리고 줄이는 부채, 돈을 내는 복 등이다. 이 주보에 따라 『通觀』(권2-권26)에서는 하위유형을 설정하여 유화들을 실고 있다. 하위유형은 <보물교환-입으면 보이지 않는 도롱이>, <보물교환-코를 늘리고 줄이는 부채>, <보물교환-돈 내는 복> 등이고, 이중에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 은신 도롱이가 나타나는 <보물교환-입으면 보

16) 稲田浩二 他 編(1977-1998)『日本昔話通觀』全31卷、同朋舎는 권1에서 권26까지는 지역별 구 전자료를 화형(話型)별로 모아놓았고, 권27은 보유편, 권28은 일본설화유형·색인편, 권29는 총색인편이다. 그리고 연구편 1, 2가 있다. 권1은 아이누민족의 구전이고, 권27은 분포지역만을 보완하고 설화의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권2-권26에 실린 자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17) IT 662 <보물교환>의 일반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노름꾼이 주사위를 흔들며 ‘교토가 보인다.’ ‘오사카가 보인다.’라고 하자, 이에 속은 텐구(天狗)가 하늘을 나는 부채와 주사위를 교환하자고 하여 그렇게 한다.
- (2) 둘은 서로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기로 하고 노름꾼이 떡이 무섭다고 하니, 텐구는 가시나무가 무섭다고 한다.
- (3) 노름꾼은 부채를 사용하여 하늘을 날아 노는데, 속은 것을 알아차린 텐구가 노름꾼을 덮친다.
- (4) 노름꾼이 가시나무 덤불에 숨자, 텐구는 많은 떡을 내던지고 사라진다.(稲田浩二(1988) 前掲論文、p.502.)

18) 도롱이는 자주 삿갓과 한 쌍으로 언급된다.

이지 않는 도롱이>이다. 그 외의 것은 은신 주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이다. 후술하겠지만 ‘주보설화’의 관점에서 보면 본고에서 다루는 이 하위유형은 IT 1150의 모두에는 없는 ‘보물교환’ 모티프만 더 나타날 뿐 나머지의 구성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이 하위유형을 IT 1150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IT 1150은 일부 유화가 ‘보물교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검토의 범위에 넣었다.

이하 <입으면 보이지 않는 도롱이>는 a형, <보물교환-입으면 보이지 않는 도롱이>는 b형이라 한다.

a형의 자료

자료	제 목	채 록 지 역	권수	쪽수	유화
1	隠れ蓑笠	青森県三戸郡五戸町	2	519	1
2	隠れ蓑笠	宮城県登米郡迫町新田	4	581	1
3	隠れ蓑	秋田県平鹿郡増町亀田	5	632	·
4	隠れ蓑羽根	山形県西置賜郡小国町大石沢	6	696	2
5	隠れ蓑笠	新潟県新発田市東新町	10	842	·
6	隠れ蓑	鳥取県東伯郡赤碓町別所	17	779	·
7	隠れ蓑	山口県大島郡東和町長崎	20	743	·
8	隠れ面	愛媛県上浮穴郡小田町町村	22	499	·
9	隠れ笠・隠れみの	長崎県南高来郡小浜町富津	24	525	2
10	隠れ蓑	沖縄県那覇市国場	26	727	2

a형 18편의 일반적 구성을 추출하여 변이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름꾼이 도박에 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춤추며 노는 덴구(天狗)를 보고 함께 춤을 추자, 도롱이를 준다. (도롱이획득)
- (2) 노름꾼은 도롱이로 몸을 감추고 술파는 집에 가서 술을 훔쳐 먹는다. (기적성공)
- (3) 그의 아내가 장롱에서 낡은 도롱이를 발견하고 태운다. (도롱이훼손)
- (4) 노름꾼은 도롱이의 재를 몸에 발라 계속 술을 훔쳐 먹는다. (재의 기적)

(5) 술기운으로 흘린 소변에 성기의 재가 벗겨져 사람들에게
게 두들겨 맞는다. (기적실패)

(1)에서는 주인공의 인물유형이나 도롱이의 입수경로에 변화를 보인다. 주인공은 노름꾼(3화), 술을 좋아하는 남자(2화), 할아버지(4화), 도둑(2화), 남자(3화), 성실한 남자(1화), 영리한 남자(1화), 변덕쟁이 중(1화), 어부(1화) 등으로 나타난다. 할아버지가 다소 등장하지만 이 설화에서 보다 개성적인 인물은 노름에 지고 곤란한 처지에 놓인 노름꾼이나 술을 좋아하는 남자이다.

도롱이를 입수하는 경로는 덴구와 놀아주고 얻는 것 외에, 가정 형편이 나아지기를 지장·관음·작용(雀榕)나무 등의 신에게 빌어서 구하는 경로도 다수 나타난다. 사례는 적지만 특이한 것으로는 절분 때 요괴 쫓는 소리를 잘못하여 요괴가 집에 들어와서는 잊고 가서 얻는 경로도 있다(자료4의 유화1). 또한 덴구와 도박해서 획득하고(자료5), 어부가 소나무에 걸린 천사의 날개옷을 훔쳐 얻는 경우도 있다(자료9의 유화). 선행을 해서 손에 넣는 것은 단 1편으로, 너구리의 손에 박힌 못을 빼주고 바르는 약을 얻는 것으로 되어있다(자료6).

입수한 주보의 종류는 도롱이와 샷갓이 세트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은신모와 가면, 콩쩍질도 1회씩 이야기된다.

(2)의 기적성공은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이 술도로나 연회석에서 술을 훔쳐 먹는 양상이 많고, 술 도둑 외에는 공양물이나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a형 18편은 모두 도둑질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고, 좋은 일에 주보를 사용하는 이야기는 1편도 없다.

(3)의 도롱이 훼손은 죄다 불에 태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우는 사람은 아내가 가장 많다. 태우는 원인은 남편의 도둑질이 곤란하여 태우는 것이 두세 편이고, 그 밖은 도롱이의 기능을 모르고 더럽거나 낡아 쓸모없다고 태운다. 이 단락은 주요한 구성이지만 간혹 구연되지 않고 (2)에서 (5)로 바로 전개해 가기도 한다(자료1의 유화, 자료4, 자료6).

(4)의 도롱이는 재로 연소되어도 변함없이 은신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주인공이 재를 발라 계속하는 도둑질은 술을 훔쳐 먹는 것인데, 단 1편(자료9의 유화1)에서는 공주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단

락에서 술의 설정은 (5)에서 정체가 발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3) 단락이 있는 자료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구성으로, 도롱이→재→은신기능보존의 기발한 고안은 이 설화의 묘미를 여실히 보여준다.

(5)의 주인공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는 양상은 여러 가지다. 술기운으로 인해 오줌을 싸서 그곳이 보이는 것(이것이 가장 많다), 술통에 입을 대고 먹다가 술이 그곳에 묻어 들통 나는 것, 여자를 범하다가 그곳의 재가 벗겨져 정체가 드러나는 것 등이다. 발각된 주인공에게 가해지는 징벌은 두들겨 맞거나 쫓겨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망치는 모습은 송이버섯이 달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또는 그곳만 드러내서 도망을 치니 사람들이 성기의 신이라며 우러러보는 것으로도 구연된다. 정체가 발각되는 상황이지만 도망치는 행위를 과장되게 그려 웃음을 유도하고 있다.

b형의 자료

자료	제 목	채 록 지 역	권수	쪽수	유화
1	宝物交換-隠れ蓑	青森県三戸郡南郷村島守	2	521	·
2	宝物交換	岩手県紫波群矢巾町	3	652	7
3	宝物交換-隠れ蓑笠	宮城県仙南地方	4	504	2
4	宝物交換-隠れ蓑	秋田県山本郡二ツ井町田代	5	554	3
5	宝物交換-隠れ蓑笠	山形県上市	6	653	2
6	宝物交換-隠れ蓑笠	栃木県塩谷郡藤原町芹沢	8	498	·
7	宝物交換-隠れ蓑	新潟県東頸城郡松代町千年	10	732	9
8	宝物交換-隠れ蓑	石川県珠洲市引砂	11	418	11
9	宝物交換-隠れ蓑笠	栃木県大野郡丹生川村駄吉	13	470	1
10	隠れ玉交換	島根県隠岐郡西ノ島町波止	18	675	1
11	宝物交換-隠れ蓑	佐賀県唐津地方	23	491	7

b형은 54편이나 채집되는 즐겨 향유된 것이다

- (1) 노름꾼이 텐구의 앞에서 주사위를 들여다보며 ‘교토가 보인다.’ ‘오사카가 보인다.’라며 속이고 주사위를 보물 도롱이와 교환한다. (도롱이교환)
- (2) 텐구가 주사위를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화를 내며 ‘나는 가시나무 덩불이 무서운데 너는 무엇이 무섭냐?’라고 물어서 노름꾼이 떡이 무섭다고 하자, 텐구는 떡을 던진다. (무서운 떡)

- (3) 노름꾼은 도롱이로 몸을 감추고 도망하여 남의 집에 가서 술을 훔쳐 먹는다. (기적성공)
- (4) 아내가 숨겨둔 도롱이를 태운다. (도롱이훼손)
- (5) 노름꾼은 그 재를 몸에 발라 계속 술을 훔쳐 먹는다. (재의 기적)
- (6) 노름꾼은 술기운에 흘린 소변으로 음부의 재가 벗겨지고, 그러자 사람들에게 쫓겨 강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알몸이 드러난다. (기적실패)

a형과 비교하면 모두의 (1)과 (2) 단락이 더 있다. (1)에서는 주인공이 주사위나 그 외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시야에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텐구의 주의를 끌어 텐구가 가진 보물과 교환한다는 후보입수경로가 구현되고 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물건은 채, 대나무통, 두건, 보자기, 구멍 뚫린 동전, 소쿠리, 망원경 등 대개 구멍이 나 있는 물건들이다. (2)에서는 주인공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텐구가 그 보복으로 무서운 것에 대한 과제를 내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여 텐구로부터 도망한다는 탈출행위가 구현된다. (1)과 (2) 두 단락에서는 후보 획득에 발휘되는 주인공의 기지가 텐구의 어리석음과 대조를 이루며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설화의 흥미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다음에 (3)-(6) 단락은 a형 거의 그대로이다. 약간 변이를 보이는 것은 (1)과 (2)의 내용들에 호응하여 음식을 훔쳐 먹는 중에 텐구가 음식에 겨자를 넣어서 재채기하여 발각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2)와 (3)-(5)은 이질적인 내용이 결합된 양상이다. (1)-(2)의 후보입수경로는 <보물교환>의 모티프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처럼 후보입수경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후보설화의 일반적 특징이다. b형의 중심은 획득한 후보의 기적에 의한 성공과 남용에 의한 실패를 그린 (3)-(5)에 놓여있고, 따라서 b형은 a형과 동일한 유형의 변이로 볼 수 있다. b형이 더 전승력을 보인 원인은 주인공의 현명함과 텐구의 어리석음이 대비됨으로써 재미를 자아내는 모두가 더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비교 분석

4.1 설화의 구성과 전승변이의 양상

지금까지는 각 지역에 구전되는 두 성격 이야기들의 전승양상을 따로 검토해 왔다. 이제 그것을 종합하여 서로 대비시켜 보려고 하는데 비교함에 있어서는 우선 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부터 짚는다. 그런 후 전승에 내재된 의미를 규명하고, 아울러 본 설화 구전에 전승집단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탐색해 보는 방향으로 옮겨갈 생각이다. 그런데 후자의 특징들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설화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는 감투와 도롱이다. 이것들은 각 지역 전승자들이 상상해낸 그들의 생각을 투영하고 있는 보물들로, 따라서 그 생각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설화의 의미와 전승집단의 의식을 제대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구성상의 대비는 다음과 같다.

A형	B형	a형	b형
(1)감투획득 (2)기적성공 (3)감투훼손 (4)기적실패	(1)나뭇잎획득 (2)기적성공 (3)이웃사람의 모방 (4)아내의 거짓말 (5)기적실패	(1)도롱이획득 (2)기적성공 (3)도롱이훼손 (4)재의 기적 (5)기적실패	(1)도롱이교환 (2)무서운 떡 (3)기적성공 (4)도롱이훼손 (5)재의 기적 (6)기적실패

한국의 A형은 ‘도깨비 감투’를, B형은 ‘은신 나뭇잎’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A형이 일반적으로 ‘주보획득(획득과 기적성공)’과 ‘주보훼손(훼손과 기적실패)’로 이루어져 있다면, B형은 후반부가 ‘적대자의 모방(이웃사람의 모방-아내의 거짓말-기적실패)’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a형과 b형은 모두 ‘도롱이’ 주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b형에서는 주보획득과정이 보물교환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질적인 유형 <보물교환>의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고, 이 활용에 의

해 결가지로 '(2)무서운 떡' 단락이 따라온 것이다. a형의 주보획득은 덴구와의 우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b형은 적대적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런 다소의 변이는 인정되지만 전반적으로 a형과 b형 둘 다 '주보획득'과 '주보훼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면, B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주보획득'과 '주보훼손'이 모두 주인공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원적 구성을 취한다. 반면에 B형은 후반부가 적대자의 모방행위로 되어있어 이원적 구성을 취하는 독자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A형과 a·b형은 잘 대응하면서도 a형은 '재의 기적'이 더 나타나고, b형은 모두에서 이질적 모티프의 유입이 인정된다.

이 설화유형의 기본형은 서로 잘 대응하는 A형과 a형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이하 두 기본형의 구성별로 요소동이(同異)의 큰 특징들을 기술하고, 세세한 점은 앞의 검토 내용에 미루어 반복된 서술을 되도록 피하고자 한다.

4.1.1 감투(도롱이)획득

양국 설화에서 큰 차이점은 주보를 입수하는 경로에 나타난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도깨비에게 얻는 것이 다수로 특징을 드러낸다. 그 입수방법도 다채로운데, 도깨비가 장난을 치다가 두고 간 것을 줍고, 주인공이 불쌍하다며 주기에 얻고, 주인공이 먹고살 방법을 물어서 얻고, 산에서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집이 마침 도깨비집이라 거기서 얻는다는 방식이다. 이처럼 도깨비로부터 획득이 다채로운 것은 우리민족의 정서에 가장 친근한 이물(異物)로 상상하면서 두렵고도 신이한 존재로, 또한 장난스럽거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설화에서는 노름에 진 노름꾼 등이 생활에 곤란하여 지장이나 관음의 신에 빌어 얻거나 덴구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덴구는 오니(鬼)로도 표현되는데 넓은 의미로는 오니(鬼)의 범주에 속하지만 일본 독특한 이물로 구현되어온 상상의 동물이다. 산속에 사는 것으로 여겼고 수행자(行者)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붉은 얼굴에 피노키오 같은 코를 가지고 날개가 있어

공중을 비행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산신(山神)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¹⁹⁾ 오니는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이물이기도 하나 어느 쪽인가 하면 원령이나 지옥귀와 같은 악귀의 인식이 강하다. 반면에, 텐구는 인간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지혜에 굴복하는 희화화되는²⁰⁾ 면이 강해, 한국의 도깨비에 근접해 있다. 이 텐구들이 노는 자리에 주인공은 참가하여 함께 놀아줌으로써 주보를 얻고 있다. 이처럼 텐구나 신앙에 의한 입수경로들은 일본의 구전이나 고전설화집에서 발견되는²¹⁾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획득한 주보의 종류는 감투/도롱이(삿갓)의 대비가 뚜렷하고, 이것을 증여하는 자는 도깨비/신·텐구의 초현실적인 인물 내지 이물이라는 문화적 대비를 보여준다.

4.1.2 기적성공

감투나 도롱이의 은신기적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두 나라 모두 이를 걸치면 투명인간이 되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훔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차이점은 훔치는 장소와 물건에 있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태반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상상될 수 있는 저갓거리 내지 시장(쌀가게)에서 쌀, 의복, 돈 등을 훔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자료 4였는데, 유일하게 일본 설화의 주요 구성인 ‘(불에 태우는)주보훔손’과 ‘재의 기적’의 단락을 갖추었는데도 주인공이 은신하여 훔치는 곳은 ‘제삿집’으로 되어있다. 나중에 ‘재의 기적’의 단락에서도 제삿집에서 콩나물을 훔쳐 먹는다. 제삿밥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가난에 찌든 민중들이 주린 배를 채우고 평소 못 먹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 훔치는 장소로 구연되었을 것이다.

19) 稲田浩二 他 4人(1977) 『日本昔話事典』 弘文堂、p.613.

20) 稲田浩二 他 4人(1977) 前掲書、p.613.

21) 신에게 기도하여 주보를 획득하는 사례는 『우지슈이모노가타리』(13세기) 권6, <가모의 신이 종이와 쌀을 내리다>가 있다. 또한 텐구와 놀아주고 주보를 얻는 예는 같은 책 권1, <혹부리영감>이 있다. 小林保治・増古和子(1996) 『宇治拾遺物語』 新編日本古典全集50 小学館、pp.211-212、pp.28-32.

일본의 설화에서는 가게에서 훔치는 예도 있으나 무엇보다 색다른 점은 술도가나 축하연회석에서 술을 훔쳐 먹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술이 특히 등장하는 것은 주인공의 골계적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장치이기도 하지만, 남성이 선호하는 기호품으로 그것을 즐기려는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1.3 감투(도롱이)훼손 / 재의 기적

주보가 훼손되는 원인에는 불이 관련된다는 일치점이 있다. 그런 반면에 불의 종류나 연소의 상태, 태우는 사람에 있어서는 상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주인공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 아니면 시장 행인의 담뱃불에 훼손된다. 훼손의 상태는 구멍 나는 정도이고 구멍은 빨간 형겅으로 깊는다. 훼손에서 원상 복귀한 감투는 원래의 은신기능은 유지하되 빨간 형겅 부분은 은신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일본의 설화에서 훼손은 우연에 의한 연소가 아니다. 남편의 도둑행위가 곤란하고 또 몰래 숨겨둔 도롱이가 더럽고 낡아 쓸모없다고 아내가 태운다. 도롱이는 완전히 연소되어 재로 성질이 전환된다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비록 완전 연소된 재이더라도 은신기능은 유지되어 있어 그것으로 주인공이 재차 물건을 훔친다는 점은 동일하다. ‘재의 기적’ 단락이 나타나는 한국의 자료⁴는 일본의 설화와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4.1.4 기적실패

주보는 일단 훼손되어 복구하거나 다른 물질로 변하여도 여전히 기능이 발휘되기는 하지만, 이전 것만큼은 온전한 것이 못되어 기적의 실패를 낳아 불행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서로 공통한다.

차이점은 무엇보다 기적의 실패로 정체가 들통 나는 장면에서이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그것이 비교적 간략하다. 빨강형겅을 덧댄 감투를 쓰고 반복해서 도둑질을 하니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행위인지 모르는 채 들락거리는 형꼴 조각을 덮침으로써 발각되는 상황이다.

이 장면이 일본의 설화에서는 주인공의 행위를 한층 더 우스꽝스럽게 구연되고 있다. 술도가나 축하연회석에서 술을 흠쳐 먹고 취기가 도니 그 자리에서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싸서 그만 그곳만 재가 벗겨지는 형세이다. 혹은 쌓아놓은 술통에 입을 대고 술을 먹다가 그곳에 흘러 드러난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부만 드러나니 술통에 송이버섯이 나있는 꼴이고 도망치는 모습은 송이버섯이 달리는 꼴이다. 혹은 국부만을 드러내놓은 채 달리니 아이와 개들이 쫓고, 쫓기다가 울타리에 구멍이 있어 거기에 끼워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식기에 관련된 신으로 간주되어 양손을 모아 우러러 받드는 웃지 못하는 상황도 구연된다. 생식기를 이용한 과장된 묘사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특징을 보인다.

4.2 은신주보 감투와 도롱이에 대한 인식

이제 이 설화에서 중심기능을 하는 은신주보 감투와 도롱이에 대하여 민중들은 어떻게 인식하며 전하였지 그 생각들을 살펴볼 차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와는 달리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간에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는 본성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마음 내부에 웅크리고 있는 욕구불만은 선(善)일 확률은 적다. 왜냐하면 선은 부끄러운 것이 못되며 남의 앞에서 행해야만 빛이 나기 때문이다. 욕구불만은 남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은신(隱身)에 관한 이야기는 문헌이건 구전이건 남성이야기로 전하고 대개 욕정과 물질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데 은신도구가 사용된다. 『어우야담』에서는, 광치허의 환술을 배웠다는 김새라는 사람이 몸을 숨기는 비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실상 그는 남의 첩을 넘보고 처음에는 몸을 숨겨 들어갔으나 비법이 전일(專一)하지 못해 주인에게 들켜 곤혹을 치렀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²²⁾ 김새의 일화는 은

22) 이월영 역주(2001) 『보유편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pp.91-93.

형술(隱形術)관련 이야기로 이물(異物)이 소유한 은신주보와는 계통이 다르지만,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비치지 않는다면 욕정을 채우려는 실례를 들여다볼 수 있다.²³⁾

앞에서 고찰한 <도깨비 감투>나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에서는 저잣거리에서 나가 물건을 훔치거나 제삿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신도구를 가지면 평소 결핍되었던 물건도 손에 넣고 식탐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김새의 일화나 구전설화의 결말이 미숙한 비법, 훼손된 은신도구로 불행을 초래하는 결말로 처리되고 있으니 마냥 선호할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도 지녔음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도롱이(삿갓)는 이미 10세기경에 ‘가쿠레미노(隠れ蓑)’ ‘가쿠레가사(隠れ笠)’, 혹은 ‘가쿠레미노가사(隠れ蓑笠)’라는 용어가 형성되어 있었을 정도로 모습을 감추어주는 오니(鬼)의 보물이라는 인식이 정착해 있었다. 10세기 전반 성립의 『미쓰네슈(躬恒集)』의 가집(歌集)을 비롯한 문학서에서 언급하고,²⁴⁾ 『가쿠레미노(隠れ蓑)』라는 모노가타리(物語), 즉 이야기문학도 출현하였다. 이 작품은 현존하지 않아 전모를 알 수 없고 작품 여기저기에 파편적으로나마 남아있는데,²⁵⁾ 그것에 의하면 주인공인 좌대신(左大臣)은 도롱이를

23) 김새와 유사한 이야기는 후진(後秦)시대(402-412)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50-409년경)이 한역한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에 보인다. 남인도의 출신인 용수보살(150-250년경)은 태생에 총명하여 온갖 학문이나 도술을 터득한 후 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은신약(隱身藥)을 만들어 몰래 궁중에 들어가 여인들을 능욕하다 장수들의 칼놀림에 죽을 뻔하고는 욕정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며 출가하였다고 한다.(자료는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EBTC홈페이지를 참조했음.) 또 서진(西晉)시대 갈홍(葛洪: 283-343년경)의 『신선전(神仙傳)』에 등장하는 개상(介象)은 도법을 수련하여 여러 비법을 수행하였는데 임금(손권)이 그에게 은형(隱形)의 비법을 배워서 후궁에게 드러내어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임동석 역주(2009) 『신선전』 제9권 동서문화사, pp.421-429.)

24) 馬場淳子(2003) 『鬼と隠れ蓑』 『立教大学大学院 日本文学論叢』3号、立教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日本文学専攻、p70.

이 외에 小町谷照彦(1990) 『拾遺和歌集』(卷第十八, 雜質) 新日本古典文学大系7 岩波書店、p.344. 松尾聡・永井和子(1999) 『枕草子』(第一00段)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8 小学館、p.203 등에도 실려 있다.

25) 松尾聡(1939) 『隠れ蓑の物語』(上) 『文芸文化』 二卷 三月号、日本文学の会、pp.32-38. 松尾聡(1939) 『隠れ蓑の物語』(下) 『文芸文化』 二卷 四月号、日本文学の会、pp.34-37.

입고 몸을 감춘 채 여인들을 훑쳐보거나 규방에 돌아다니고 있다.

은신 도롱이는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보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도롱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세기 성립으로 추정되는 불교설화집 『호부쓰슈(宝物集)』이다. 작자인 다이라노 야스요리(平康頼 1146-1220년경)가 사찰 세료지(清涼寺)에 참배하였을 때 한밤중에 잠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에게 으뜸인 보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담론을 하였다. 이 담론에서 제시되는 보물로 첫 번째가 은신 도롱이(隱蓑)이다. 담론 중에 한 사람이 ‘가쿠레미노’가 보물인 이유를 세 가지 든다. 첫째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음식과 옷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둘째는 말하기 꺼리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셋째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감추려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⁶⁾ 즉 첫째는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훑치는 것이고, 둘째는 비밀스러운 것을 도청하는 것이고, 셋째는 규방에 침입하여 여인을 훑쳐보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은신 도롱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담론은 거기서 더 전개하여 이를 듣고 있던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훑치는 것은 도둑에 불과하다며 그릇됨을 말하고 그 실례로 용수보살의 출가담을 들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은신 도롱이를 가진 자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으며 『가쿠레미노(隠れ蓑)』의 이야기도 것처럼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로 만든 것이라고 평하였다.

말하자면 은신 도롱이는 물질적 충족, 남에 대한 호기심, 애욕 등의 근원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지만, 욕구의 해결은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세상에는 애당초 그러한 것은 없고 사람들의 바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문헌에서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아울러 그 존재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가해지고 화젯거리 혹은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 무료함을 달래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구전에서는 애욕의 충족은 극히 적으며 간간이 노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물건(옷·공양물)과 음식, 특히 술을 훑쳐 먹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 술은 결말에서 정체발각이라는 장치걸이면서 기호적

26) 古泉弘(1993) 『宝物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40、岩波書店、pp.14-15.

인 취향에 대한 욕구이며 그 식탐도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구전의 은신 도롱이가 재로 성질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연되는 것을 보면, 상류층을 기반으로 한 문헌과 다르게 하층민들의 현실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갈망, 그리고 후보에 대한 환상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3 설화의 의미와 전승집단의 의식

은신의 감투와 도롱이가 민중들 바람의 상상물인 이상, 그 바람을 은신주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해보고자 한 것이 <도깨비 감투> 설화이다. 설화의 주인공이 감투를 쓰고 흠치는 것은 쌀, 의복, 돈 등이며, 또 제사음식이었다. 일본의 설화에서도 음식과 옷, 절의 공양물, 또 술이었다. 민중들의 바람은 가당치도 않는 큰 지위나 출세 따위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양식과 돈이며, 평소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음식이나 의복이었다. 이런 물질적 풍족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설화의 주인공이 남의 눈을 피해 한몫 잡으려는 무모한 야심도 애당초 물질적인 결핍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중들은 먼동이 터서부터 밤별이 뜨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항상 가난하고 못살고 못먹는 마음에 '비만감'이 들어(자료3)²⁷⁾ 은신주보에나마 기대보려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었다. 신분적 계급의 차이가 없고 생산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개인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의 편중은 심화되고 있는데, 그저 자연적 환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산 민중들의 팍팍한 생활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요행을 바라는 본성이 꿈틀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한 사회현실에서 요행은 자칫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설화에서는 후보를 잇달아 악용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그것을 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충족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성취하여야할 것을 교훈하고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5) 『한국구비문학대계』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445.

있는 것이다. 또한 삶에는 뜻밖의 행운도 찾아오기 마련이나 그 행운에 자족을 해야지 무모하게 더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망에 지나지 않음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설화의 의미를 교육적 사회성에서 짚어보았는데, 그와 동시에 설화에 표출하고 있는 오락적 성격도 간과할 수 없다. 거기에는 각박한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일상의 긴장을 풀고 즐기하고자 한 민중들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환상적이고 짜릿한 일인가. 그런 물건을 가졌다면 무엇을 해볼 것인가, 민중들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본다. 도둑질이라는 슬프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극단적인 행위, 그러나 주린 배를 간접적으로나마 채워보는 그런 행위를 상상해본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채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도 보고 부자도 되어본다. 그런데 사용하던 감투가 갑자기 훼손된다면? 훼손은 어느 정도의 상태로 할 것인가. 옳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옷을 잡아먹는 담뱃불에 뚫린 구멍정도로 해보자. 이 얼마나 기발한 착상인가. 그런데 훼손된 감투는 은신의 기능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 환상적인 놀이에 은신기능을 유지시키고 그 대신에 빨간 형겔으로 꿰매고 형겔은 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기지도 발휘해본다. 빨간색은 악귀를 막아주는 주술적 상징이 있으니 은형이 되지 않게 전개한다면 합당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저잣거리에 빨간 형겔이 들락거리고, 가게에 형겔만 나타나면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이 도깨비 같은 일에 어안이병병해하는 주인의 꼴도 만들어본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서는 이야기를 전승하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 은형이 되지 않는 빨간 형겔 때문에 덜미가 잡히는 주인공도 상정해본다. 가게주인에게 감투를 머리에서 흘러당 벗기고는 그대로 맨얼굴이 노출되어 진탕 얻어터진다는 한바탕의 재치 있는 입담을 발휘해보는 것이다.

민중들은 이런 환상적이고 웃음보 터지는 이야기를 창조해내고 자신들의 분신인 주인공을 활약시켜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삶의 활력소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 오락성이 생식기노출이라는 더욱더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소화(笑話)로 전개한 양상을 보인 것이 일본의 설화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동서양으로 광포하는 <도깨비 감투> 설화에 대한 연구가 국내자료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온 한계를 벗어나 일본의 동일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 국제적 비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상에서 양국설화는 ‘주보획득-기적성공-주보훼손-기적실패’의 전개를 보이며, ‘기적실패’ 단락의 앞부분에 ‘재의 기적’이 더 나타나는 것이 일본 설화의 특징이다.

둘째, 내용상에서 한국형은 머리에 쓰면 모습을 감추어주는 감투를 도깨비에게 얻은 가난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 일시적으로 물질적 충족을 얻었으나, 훼손된 구멍을 기운 빨간 형겁으로 발각된다는 전개이다. 이에 대해 일본형은 신이나 텐구에게 은신 도롱이를 얻은 노름꾼이 도둑질을 해서 물질적인 충족을 얻었으나, 아내가 태운 도롱이의 재를 발라 다시 술을 훔쳐 먹다가 술이 묻은 생식기가 노출되어 발각된다는 전개이다. 이처럼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를 테면 도깨비/신·텐구, 감투/도롱이, 불에 훼손된 구멍/불에 탄 재, 빨간 형겁 노출/생식기 노출 등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셋째, 설화의 의미와 전승집단 의식의 고찰에 있어서는 양국설화 모두 주보를 악용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충족은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성취해야한다는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이 교육적 사회성의 의미와 더불어 은신의 환상적 오락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답답한 현실을 잊고 삶의 활력소를 찾고자 한 민중들의 의식도 고찰된다. 이 설화의 오락성이 일본의 설화에서는 국소노출이라는 더욱 과장되게 표현되어 소화로 전개한 특징이 보인다.

넷째, <이마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나뭇잎> 설화는 은신주보로 물건을 훔친다는 구성의 일부는 공통하지만, ‘적대자의 모방’의 구성을 취하는 등 <도깨비 감투>와는 다른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일본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정섭(2004) 『동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서현사, pp.236-240.
- 노용환(2000) 『<도깨비 감투>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8.
- 박연숙(2004) 「일본전파를 통해 본 「도깨비방망이」 설화의 국제성」 『일본어문학』27, 일본어문학회, pp.247-280.
- _____ (2015) 「<치병활인금척>과 <머슴의 꿈> 설화유형의 한일 비교(1)」 『일본어문학』 69, 일본어문학회, pp.107-140.
- 이월영 역주(2001) 『보유편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pp.91-93.
- 임동권(1972) 『한국의 민담』 서문당, pp.1-308.
- 임동석 역주(2009) 『신선전』 제9권 동서문화사, pp.421-429.
- 임석재(1989)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2권, 평민사, p.229.
- 정채영(1990) 『도깨비 민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9.
- 조동일 외 4인(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1)』 한국정신문화연구소, pp.547-548, p.616.
- 최인학(1994)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p.306, p.34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265.
- _____ (1985) 『한국구비문학대계』 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445.
- 稲田浩二 他 4人(1977)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p.613.
- 稲田浩二・小沢俊夫(1982) 『日本昔話通観』 第2巻、同朋舎、p.519.
- 稲田浩二(1988) 「昔話タイプ・インデックス」 『日本昔話通観』 第28巻、同朋舎、p.643, p.502
- 井之口章次(1952) 「隠れ蓑笠-昔話の趣向とその背景-」 『民間伝承』16巻4号、日本民俗学会、pp.164-167.
- 関敬吾(1983) 「昔話の型」 『日本昔話大成11』 角川書店、p.96.
- 小林保治・増古和子(1996) 『宇治拾遺物語』 新編日本古典全集50、小学館、pp.211-212, pp.28-32.
- 小町谷照彦(1990) 『拾遺和歌集』 新日本古典文学大系7、岩波書店、p.344.
- 馬場淳子(2003) 「鬼と隠れ蓑」 『立教大学大学院 日本文学論叢』3号、立教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日本文学専攻、p70.
- 古泉弘(1993) 『宝物集』 新日本古典文学大系40、岩波書店、pp.14-15.
- 松尾聡・永井和子(1999) 『枕草子』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p.203.
- 松尾聡(1939) 「隠れ蓑の物語」(上) 『文芸文化』 二卷三月号、日本文学の会、pp.32-38.
- _____ (1939) 「隠れ蓑の物語」(下) 『文芸文化』 二卷四月号、日本文学の会、pp.34-37.
- 崔仁鶴(1976) 『韓国昔話の研究 その理論とタイプインデックス』 弘文堂、pp.251-252.
- Aarne-Thompson(1964) “*The Types of the Folktale*”, Helsinki, p.214.
- Eberhard Wolfram(1937) “*Typen Chinesischer Volksmärchen*”, FFC 120, Helsinki, pp.109-110.
- [德]艾伯華 著 王燕生・周祖生 訳(1999) 『中国民間故事類型』 北京商務印書館, pp.120-121.

<Abstract>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okkebi Gamtu Folktales

Park, Yeun-Sook

This study discuss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etected in stories of “Dokkebi Gamtu” typ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orean folk tale of Dokkebi Gamtu is the story of a poor man who gained gamtu to conceal his appearance to steal other people’s things so that he gets a material satisfaction temporarily, but this story comes to the scene where such theft is uncovered due to the trail of stitched red cloths overlaying damaged holes. In contrast, in the Japanese folk tale, a gambler gets a material satisfaction with a hidden Dorongyi which he acquired from the god or Dengu, but his theft, or drinking at a restaurant without paying his bill, is discovered when the ashes of burned Dorongyi came off his body while he was doing bed-wetting in the restaurant. Thus, whilst the stories in the two countries show a structural commonality in the success and failure of stealing, cultural differences such as gamtu, the god and Dorongyi in Dengu have been reviewed. Through the study in the sense of folk tales, in order to meet the material demands in the two nations, the educational sociality appears that material satisfactions must be satisfied in a proper way.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hidden fantastic story, forgetting the stuffy reality,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radition has been studied to find the lifeblood. Thus, the entertainment nature of such folk tales in local legends of Japan is transformed into a funny story based on the exaggerated expression describing the exposure of sexual organs.

Key words : Dokkebi Gamtu, invisible Dorongyi wear, material satisfaction, fantasy, educational sociality

투 고 일 : 2016년 3월 31일
심 사 일 : 2016년 4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9일